

# 다문화인의 적응과정에서 공공도서관의 역할

-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

## A Study on the Roles of Public Libraries in the Accommodating Process of Multi-cultural population in Korea : Social Capital Approach

김하진,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hajin\_228@yonsei.ac.kr

김기영,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gkim@yonsei.ac.kr

Ha Jin Kim,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Yonsei University

Giyeong Kim,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Yonsei University

본 연구는 다문화인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공공도서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탐색하였다. 특히 사회자본의 요소인 네트워크의 특성과 신뢰감을 핵심개념으로 설정하고, 4인의 다문화인과의 심층면담 수행 후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은 다문화인들에게 알은 관계와 일반화된 신뢰감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내의 교량형 사회자본의 형성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1. 서론

한국사회는 경제발전 및 사회변화 등의 영향으로 1990년대 이후 외국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2007년 8월에 외국인의 숫자가 100만을 돌파하면서 다문화사회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김영미, 조인숙 2011). 이제 한국사회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으며, 다문화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주요한 일원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 다문화인의 한국사회 적응은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지역의 공공기관과 함께 공공도서관이 다문화인의 한국사회 적응에 있어서의 역할은 문헌정보학 영역에서 주요한 연구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인들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첫째, 공공도서관은 다문화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둘째, 다문화인들은 공공도서관을 통해 어떻게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가.

셋째, 다문화인들은 공공도서관을 통해 어떻게 신뢰감을 형성하고 있는가.

### 2. 이론적 배경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은 각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사회자본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프랑스 사회학자 Bourdieu (1986)에 의해 선도되었으며 그 후 Coleman 과 Putnam 의해 전개되었다(류석춘 외 2003). 사회자본의 정의는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이러한 다양한 정의는 대체로 사회자본을 경제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과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성격의 자본, 즉

관계에 내재된 자본적 성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자본적 성격을 띄는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에 따른 사회자본의 요소로서는 우선 연결망(Network)이 있으며(Coleman 1988), 연결망은 결속력의 강도에 따라 강한 유대(strong tie)와 약한 유대(weak tie)로 구성된다(Svendsen 2013). 또한 Coleman(1988)은 사회자본의 중요한 요소로 신뢰를 들고 있는데 신뢰에는 특별한 신뢰와 일반화된 신뢰로 나누어 볼 수 있다(Putnam 2000; Värheim 2011).

이러한 구성요소를 고려할 때 사회자본은 크게 결속형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과 교량형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결속형 사회자본은 밀집된 네트워크로 강한 유대 관계와 특별한 믿음 관계에 기반하며, 교량형 사회자본은 넓은 네트워크로 많은 약한 유대 관계와 일반화된 신뢰에 기반한다.

사람들에게 정보와 장소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은 사람들의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Värheim 2011). Svendsen (2013)는 공공도서관을 통해 생산되는 사회자본을 관계적인 성격으로 이해하였으며, 이에 따라 결속형 사회자본과 교량형 사회자본을 구분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다. 공공도서관과 사회자본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국내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자본의 성격을 지닌 공공재로 이해하였으며 사회자본과 공공도서관의 연관성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사회자본의 창출방식을 분석하였다(박성우, 장우권 2009; 장우권 2012).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고려하며, 특히 다문화인이 공공도서관을 통해 어떻게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연구 목적을 위한 방법으로 질적 연구의 하나인 심층면담을 적용하였다. 피면담자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며, 면담을 위해 한국어 또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한국에 거주한지 4년 이상 되는 다문화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선정된 4명의 피면담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면담은 한국어와 영어로 최소한 1시간 이상 진행되었으며, 면담내용은 피면담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어, 녹취록이 작성되었다. 분석은 녹취록을 대상으로 하며, 앞서 제시한 3개의 연구문제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표 1> 심층면담 피면담자

ID	국적	한국 체류 기간	자녀유무
ID-1	필리핀	7년	아들 (6세)
ID-2	필리핀	4년	딸 (4세, 2세)
ID-3	중국	7년	딸 (7세), 아들 (4세)
ID-4	일본	5년 반	자녀 없음

### 4. 연구 결과 및 분석

#### 4.1 다문화인들이 본 공공도서관

우선, 다문화인의 공공도서관 인지 경로는 지인인 한국 친구 및 가족, 그리고 지역 다문화 센터 등이 언급되었다. 또한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직접 자신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도서관을 이용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제 시아버지가 알려주셨어요.” (ID-1)

“다문화센터에서 그들이 정독도서관에 대해 말

해줬어요." (ID-2)

"내가 인터넷을 찾아서...여기(공공도서관)에 왔어." (ID-3)

피면담자들이 공공도서관에 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피면담자 개인의 인식과 위안을 꼽고 있었으며, 자녀가 있는 피면담자 3명은 도서관에 오는 이유를 자녀의 독서, 자녀를 위한 교육 정보 획득 또한 주요한 이유로 언급하였다.

"두 명의 딸을 위해 한국어 책을 읽어주며, 나 또한 책을 읽어줌으로써 한국어를 연습해요." (ID-2)

"도서관은 편안한 곳이에요. 마음의 안정이 되고.." (ID-1)

#### 4.2 공공도서관에서의 네트워크 형성

피면담자들은 면담에서 공공도서관이 다문화인들에게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정보 제공의 역할, 문화 체험의 역할, 관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다문화인들은 공공도서관을 통해서 한국사회를 보다 깊이 알아가기 시작하였으며, 지역 공동체와의 연결고리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며 약한 유대 관계의 넓은 연결망을 형성해 나가고 있었다.

"다양한 책 안에서 한국 문화를 읽히고 배우고 있어요." (ID-1)

"여기에서(공공도서관) 한국어를 배우는 좋은 기회가 돼요." (ID-4)

더 나아가 다문화인들은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끼리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사람에 대한 넓은 연결망을 형성하였으며, 그들과의 약한 유대 관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도서관에서는 많은 사람들, 다양한 인종을 볼 수 있어요. 도서관에서는 다른 민족 사람들이 오가고 만나기도 해요." (ID-2)

"다문화자료실에서 프로그램을 하며 우리(다문화사람들)는 모두 만나요." (ID-1)

#### 4.3 공공도서관에서의 신뢰감 형성

공공도서관의 일반이용자가 대부분 그러하듯 다문화인들 역시 사서를 그 공공도서관 자료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였다. 이는 도서와 관련된 질문을 통해 사서와 관계를 맺으며, 이러한 관계를 통해 일반적인 신뢰감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공도서관을 자주 이용할수록 사서와의 관계가 가까워지지만 개인적인 사생활까지는 대화를 주고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관계의 양이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 혹은 관계의 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관계의 양을 조절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공도서관과 사서는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연결망 형성에 하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서라는 공식적 지위의 인식을 통한 약한 유대 관계에서의 일반화된 신뢰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책이 있는지.. 그런 것은 물어보는데 친하게는.. 별로..어느 정도까지만..." (ID-4)

"대화를 나누지만 나의 느낌과 감정까지 사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ID-1)

또한 피면담자들은 한국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자녀교육을 꼽았다. 한편, 국적이 다른 다문화인들과는 같은 입장에서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같

은 처지를 배경으로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 경우에도 신뢰감의 강도는 사서와 유사한 일반화된 신뢰감 수준이었다.

"다른 한국분애들 어떻게 교육하는지... 한국 어린이 엄마들 어떻게 교육하는지. 그래. 배워야지." (ID-4)

"도서관에서는 다문화 사람들과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게 되요. 그러나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은 하지 않아요." (ID-1)

이처럼 다문화인들은 한국문화 적응을 목적으로 공공도서관 및 사서, 그리고 다른 국적의 다문화인과 약한 결속 관계에서의 일반화된 신뢰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관계형성이 명확한 목적을 가진 강한 의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5.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공공도서관을 통해 어떻게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있는지, 또한 공공도서관을 통한 사회자본의 성격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문화인들에게 공공도서관은 약한 결속관계의 일반화된 신뢰감의 성격을 갖는 교량형 사회자본 형성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다문화인들이 공공도서관을 통한 사회자본 형성에 한국사회의 적응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피면담자들은 한국사회에서 최소한 4년 이상의 기간을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다문화인의 사회자본 형성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일시적이라기보다 지속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소수의 피면담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그 분석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며, 지역사회 관련 기관들의 고려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확인하기 위해 다수의 다문화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후속연구가 요구되며, 이 후속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다문화관련주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영미, 조인숙. (2011). 사서와 다문화인 이용자의 서울시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에 관한 인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1), 103-124.
- 류석춘, 장미혜, 정병은, 배영 역. (2003).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서울: 그린.
- 박성우, 장우권. (2009). 사회자본과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2), 215-231.
- 장우권. (2012). 공공도서관의 사회자본 형성과 성과.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하계학술발표, 27-48.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241-258.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121.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the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Svendsen, G. L. H. (2013). Public Libraries as Breeding Grounds for Bonding, Bridging and Institutional Social Capital: The Case of Branch Libraries in Rural Denmark. Sociologia Ruralis, 53(1), 52-73.
- Värheim, A. (2011). Gracious Space: Library programming strategies toward immigrants as tools in the creation of social capital.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3(1), 12-18.